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소설바람

포르투갈·터키·이스라엘·그리스 작가 활발히 소개

지중해 권역 소설들이 하나둘 소개되고 있다. 포르투갈·터키·이스라엘·스페인·그리스 등 지중해에 인접한 이들 국가의 소설은 영미문학에 치우친 우리 번역문학의 기형화를 교정할 뿐더러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흡사해 쉽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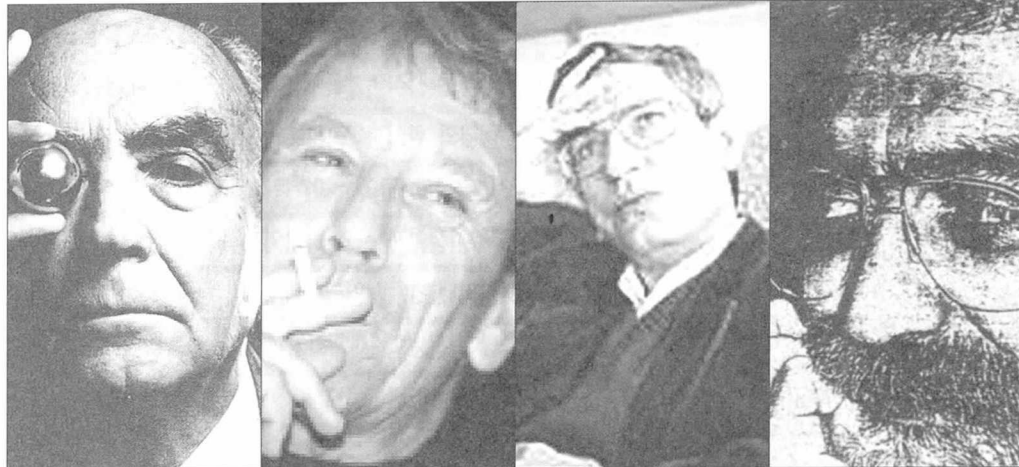
이제 와 중역되는 사라미구의 소설들

지중해 권역 소설의 선두주자는 포르투갈의 주제 사라미구다. 사라미구는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동시에 올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그런 탓에 1980년 이후, 대부분의 작품이 20여개국에서 번역됐고 유럽 여러나라에서 문학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초 민음사가 관심을 보였으나 불발에 그쳤다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문학세계사·해냄·문학수첩 등에서 그의 대표작을 번역 출판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사라미구의 대표작 《수도원의 비망록》(신현철 외 옮김)을 최근 출간한 문학세계사(대표 김종해)는 곧 《돌멩이》도 펴낼 계획이다. 사라미구의 존재를 세계에 널리 알린 1982년 작 《수도원의 비망록》은 연인 사이인 노역군인 발파자르와 중죄인의 딸 블리문다가 '하늘을 나는 물체'를 만든 바르우로메우 신부와 함께 하늘로의 탈출을 꾀하지만 결국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돌멩이》의 상상력은 더욱 놀라워 이베리아 반도가 초자연적인 이유로 유럽과 분리되고 포르투갈인들은 이제 더이상 그들이 가졌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대서양의 남쪽으로 표류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냄(대표 송영석)은 《눈먼 자들의 도시》를 전문번역가 정영목씨에 의뢰한 상태에서 12월 중 책이 나올 예정이다. 알레고리 형식의 이 소설은 사람들이 이유없이 눈이 멀게 되는 어느 가공국가를 배경으로, 눈먼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차장해서 수용소에 들어가는 한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 '눈이 있느냐 우리는 무엇도 보지 못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은 소설이다. 문학수첩(대표 강봉자)은 1991년 발표돼 로마 교회에 대한 신성모독이라는 극렬한 비난을 받은 작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출간할 예정이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묘사된 예수의 모습을 통

지중해 주변 국가들의 문학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주제 사라미구를 비롯해 터키·이스라엘·스페인·그리스 등의 문학작품이 활발히 번역돼 나와 이제까지 영미문학에만 치우쳐왔던 외국소설의 기형화를 교정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 소개된 주제 사라미구·아모스 오즈·오르한 파묵·아흐멧 알탄(왼쪽부터).

해 종교의 허구적 요소와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가진 심리적인 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한 전공자의 노력으로 소개된 터키 문학

사라미구의 작품을 제외하면 가장 활발하게 번역되는 나라는 터키다. 최근 번역된 터키문학으로는 아흐멧 알탄이 쓴 《위험한 동화》(좋은날)가 있으며 앞으로 오르한 파묵의 《새로운 인생》(민음사)과 《하얀성》(문학동네)이 출간될 예정이다. 이들 책은 모두 이난아 교수(한국외대 터키어과)가 번역했다.

터키는 우리와 비슷한 사회 발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영미문학보다 우리 정서에 더 가깝다. 아흐멧 알탄은 1980년대 터키문학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작가 중 하나로 그가 쓴 《위험한 동화》는 터키 내에서 50쇄 이상 출판됐다. 한편의 소설밖에 발표하지 못한 40대 작가가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소설 속의 여자와 현실의 여자에게 느끼는 외로움을 다룬다. 《뉴욕타임즈 북리뷰》가 '동양의 샷샷'이라고 소개한 오르한 파묵은 노벨문학상 후보에도 올랐다. 《새로운 인생》은 주인공 오스만이 어떤 책 한 권을 읽고 모든 인생이 바뀌었다는 고백으로 시작한다. 《하얀성》은 파묵의 초기작에 속한다. 나폴리로 가는 도중, 터키인들에게 포로로 잡힌 이 소설의 화자는 그 후 자신이 오스만 영토에서 보낸 40년간의 이야기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한다.

그밖에 최근 번역된 지중해권 문학작품으로는 강력한 노벨문학상 후보이자 세계 30

여개국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소설가 아모스 오즈가 쓴 《나의 미카엘》(민음사), 역시 31개국에 번역된 그리스의 국민작가 안토니오 사마라키스가 쓴 《면도》의 3권(신서원), 헤럴드문학상과 이카로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스페인의 여성소설가 가르시아 모랄레스가 쓴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세이렌의 침묵》(한겨레) 등이다. 이들 작품은 현지에 유학한 각 언어 전공자가 직접 국내에 소개한 작품들로 영미문학에만 치우쳐 있던 외국소설의 집중현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사실 이제까지 지중해권역 소설들은 그다지 큰 반응이 없었다. 의욕적으로 사마라키스의 소설을 출간한 신서원의 임성열 사장은 "그리스 문학 자체가 낯선 데다가 요즘 독자층의 심성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좋은날의 정성욱 편집장은 "제3세계 문학 출판이 아직 위협하긴 하지만 홍보만 잘하면 나간다"고 말했다. 현대성을 갖춘데다 문화적 정서가 우리와 비슷한 《위험한 동화》는 3쇄를 인쇄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중해권역 문학을 포함한 소수언어 문학 번역이 더딘 이유는 실력있는 전공자가 드문데다 출판계도 세계문학의 흐름에 둔감하기 때문이다. 사라미구의 경우도 수상 후에야 번역작업에 들어가는 통에 모두 영역본을 텍스트로 삼은 데다가 어떤 경우는 책한권을 네명이 나눠 번역한 경우도 있어 줄속번역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 점에 대해 해냄의 김두환 기획부장은 "사라미구 경우

그의 작품만을 계속 번역해온 지오반니의 영역본이라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고 문학세계사의 김요일 기획실장은 "수상작품을 빨리 출간해야 하는 일정상 어쩔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송필환 교수(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등 전공자들의 감수를 거친다"고 말했다.

우리정서와 유사한 주변부 문학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직접 번역해야 옳다는 게 전공자들의 말이다. 《나의 미카엘》을 번역한 최창모 교수(건국대 히브리어과)는 "세계문학의 흐름에 둔감한 출판사와 적극적으로 소개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전공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터키문학을 본격적으로 국내에 소개한 이난아 교수도 "현재 출판계는 영미문학이나 베스트셀러에 치중하지만, 터키와 같은 주변부 문학이 오히려 우리 정서와 더 비슷하다"고 강조한다.

최창모·이난아 교수 등은 "현재 뜻있는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소수언어 문학을 번역하는 학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전공분야의 문학작품 소개가 미흡했다는 스스로의 반성에서 비롯된 일이다. 출판사들도 영미권에서 눈을 돌려 세계의 다양한 문학을 소개하는 일에 더이상 게으름을 피워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벨상 수상자의 번역본 하나 없이 문학·출판의 세계화는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 김연수 기자